

2022년 05월 1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3편 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55(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레위기 6장 8~13절(구약p.153)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2.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13.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 말씀선포 /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성도의 삶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단과 장막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장막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언약하실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불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요, 계명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신앙의 행위란 결국 제단에 불이 있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고, 때론 불이 꺼진 다른 사람에게 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진 불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할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제

물을 받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단은 구약시대와 같이 돌단을 쌓는 제단이 아니라 성도의 예배와 기도, 희생과 봉사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교회는 진리파수,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교육이념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시대적 상황과 또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주일학교 교육은 많이 쇠퇴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 같은 자녀들이 더욱 신앙으로 자라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단에 불을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까?

1. 우리 속에 있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 우리 속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권면했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이란 성도의 마음, 즉 심령 가운데 있는 “열심”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불이 사그라지면 악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불이 아니고서 악한 자의 불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 말씀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직책 또한 은사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직분자, 봉사자,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보다 우리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며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성령의 불이 약하고 꺼져가는 자녀들에게 더욱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가정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 가정 제단은 축복의 불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은 가정 제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구제함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고넬료의 가정과 딸들이 예언한 빌립의 가정은 모두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가정들입니다. 시편 128편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면 그 가정에 악한

영이 틈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더욱 악이 가득하고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불로 능력을 입어 이 시대 참된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교회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 교회 제단에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선교와 전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 제단은 믿음 훈련의 도장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로 상담하는 곳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제단에 항상 불이 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길이 항상 위로 올라가듯이 불 있는 제단은 기도가 올라가고, 감사와 찬송 성도의 마음과 헌신과 봉헌한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제단에 항상 불이 있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예 힘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에 힘썼고, 서로 헌신하며 섬기는 봉사에 힘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이러한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매일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정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의 제단과 가정 제단 그리고 교회 제단에 꺼지지 않고 항상 뜨겁게 타오르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91(통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 폐 회 / 주기도문